

영어 청해력 신장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Problems and Suggestions of the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 Focused on Effective Teaching Methods -

수원대학교 이 미 재

abstract

1. 서론
2. 청해력 습득 과정상 문제점
3. 효과적인 교수법 제안
4. 결론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s of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the rate of understanding difference in positions and sentence structures, parts of speech easily missed to understand, English sounds only in English(not in Korean), confusion of sounds, unaccented prefixes and suffixes, polysemy, homonym, juncture, understanding as one word by two different words, and sound blending in a normal speed of connected speech. Bearing those in mind I taught Suwon University freshmen video English with the mixed idea of Peterson's bottom-up and top-down methods putting in a meaningful context with thought group rather than word to word understanding. As a consequence, their errors come: prepositions, conjunctions, unstressed prefixes and suffixes, -ing from the present progressives and so forth. Assignments to have students transcribe the TV commercials and the names of reporters or Korean related news from English broadcastings are of use and help.

1. 서론

청취력 이해증진에 대한 기존 교육 및 연구가 그 원인을 학생들의 귀에만 매달려 보다 많은 정보 입력 주입에만 매달렸고 그래서 입력에 의한 정보 소화 내지는 처리에 주력했다. 그래서 영어의 hearing speaking reading writing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하

여 각 기능을 따로따로 연습시키고 청해면에서는 단어대 단어(word for word)를 듣고 이해하는 과정의 연속 동작으로 훈련시켰다. 최근 Berwick과 Weinberg(1984)에서 듣고 이해하는 소극적 청해법에서 벗어나 말하기와 쓰기의 언어 산출(language production)면을 동반하는 적극적인 청해법과 이를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 세상에서의 의사 소통방법과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지적 측면을 가미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적극적 청해법과 더불어 유의적인(meaningful) 문맥(context)이 있어야만 외국어로서 영어를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청해력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해력 교수법도 단어보다 구(phrase)와 사고 단위(thought unit)로 입력 시켜야하며 반드시 유의적인 사용이 전제되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청해력 습득 과정상의 문제점

강명자(1990)에서 보여준 것처럼 학습자의 언어 감지율은 명령문과 의문문에서는 높은 반면 긴 발화문은 말할 것도 없고 짧은 발화문에서도 문장의 끝으로 갈수록 감지율이 낮아지는데 8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긴 발화문의 끝으로 갈수록 감지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44.6%)을 나타낸다. 또한 발화문의 중간 부분이 가장 잘 감지되지 못하는 경우는 발화문이 길어질 때나 접속사로 연결될 때 더욱 뚜렷하다.

또한 이 창호(1971)의 통계에 의하면 각 낱말의 품사 가능에 따라 잘 못 듣거나 못 들은 빈도 수가 달랐다. 예를 들면 have동사이면서도 조동사로 쓰이느냐 또는 본동사로 쓰이느냐에 따라 강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능에 따라 청취 이해도가 다르다. 그러나 368개의 문장에 쓰인 2717개의 낱말 중 잘못 들은 회수와 못 들은 회수별로 각각의 사용 빈도에 대한 비율을 조사했는데 잘 못 들은 회수(M)와 못 들은 회수(F)가 10 이상인 경우만을 추출해 보았다.

	잘 못 들은 회수(M)	못 들은 회수(F)
a	66	122
across	28	3
all	21	8
be	21	34
Berkeley	33	1
an	17	33
are	18	29
at	12	12
'd	35	8
did	12	3

drawl	22	5
for	28	54
fairly	12	/
farm	13	5
had	14	17
have	38	32
fourth	15	10
get	16	43
in	48	88
is	43	41
he	18	3
how	13	4
I	52	87
'll	92	28
kids	17	5
lived	9	11
lot	11	10
'm	8	10
me	24	11
near	15	3
'nt	44	34
of	32	103
Powel	19	3
oldtimer	16	16
on	21	45
ought	35	19
out	11	23
quaint	15	4
're	32	5
read	12	19
's	57	36
some	11	37
start	10	5
that	34	54
the	63	182
ther	26	23

the	31	14
though	20	13
through	16	17
to	65	188
tour	26	15
've	30	6
we	23	33
were	42	2
what	23	12
whereabouts	31	2
will	23	30
with	14	31
woods	11	/
was	10	6
you	66	51
your	20	24
would	10	23

정관사 부정관사 조동사 전치사 'nt forms 's forms 등 축약형과 지시사 be동사와 have동 및 고유명사가 잘못 듣거나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명사나 동사 형용사 부사등 내용어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은 점과 대조적이다.

또한 have 및 be 동사와 전치사와 조동사처럼 문장안에서의 기능과 위치에 따라 조동사로 쓰인 경우와 본동사로 쓰이는 경우 강세의 차이가 이해력에 차이를 준다. 조동사로 사용될 경우 본동사 앞에 위치하여 약강세를 받을 때와 문장 끝에서 제일 강세를 받을 때가 현저하게 다르다.

	잘 못들은 회수(M)	못들은 회수(F)
have unsp	60	35
sp	26	21
be unsp	239	170
sp	7	/
전치사 unsp	284	597
sp	19	48
조동사 unsp	250	184
sp	9	4

강세를 받지 않으면 전치사의 경우 597회를 못 듣고 마는데 강세를 받으면 48번만 못 듣는 경우와 be동사와 조동사도 강세위치가 아닐 경우 170회와 184회를 못 듣다가 강세의 위치에 오면 0과4로 못 듣는 회수가 거의 없다. 즉 강세의 위치에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청해력 이해의 정도가 다르므로 약강세의 위치에 오는 경우를 특히 강조해야 될 것이다.

사용빈도가 높은데 잘못 듣는 회수와 못 듣는 회수가 높은 경우를 보면 더욱 흥미롭다.

	잘 못 듣는 회수(M)	못 듣는 회수(F)
I	52	87
to	65	188
the	63	182
you	66	51
a	66	122
it	85	115
of	32	103
for	28	54
are	18	29
that	54	71
in	48	88
'll	92	28
'nt	44	34
will	23	30

두번째로 한국어에는 없는 음소가 영어에는 있어 그 단음소(segmental phonemes)만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bath --> bad
 often --> open
 really --> neally
 leaving --> leading
 coast --> cost
 things --> seeings
 we'd -->with

이 경우는 우리말의 음소에는 없는 영어 음소의 숙달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세번째로 단음소의 혼동으로 전혀 다른 의미 해석을 야기시킨다.

across the bay --> a closed bay
 a tour through --> toward
 me though --> middle
 get an old-timer --> get on time'
 I'm now --> I'm not
 as much of -->as much as

네번째는 connected와 disconnected 에서처럼 액센트 없는 접두사를 잘 듣지 못한다.

내용어(content word)는 잘 알아듣지만 내용어에 곡용이나 활용이 첨가 될 경우 첨가된 곡용과 활용을 잘 듣지 못한다.

wanted/want	plays/play
goods/goose	woods/wooes
connected/disconnected	possible/impossible
changeable/unchangeable	thinkable/unthinkable
capable/uncapable	happy/unhappy

이 때는 마치 not 또는 n't를 잘 못 알아들었을 때처럼 의미의 완전한 오해가 오기 때문에 특히 주의 해야한다.

다섯번째는 다의어의 의미 파악이 장애가 된다. 특히 품사의 기능과 역할이 다를 경우는 더욱 어렵다.

down(전치사로서/명사로서)	change(verb/noun)
present(verb/noun)	liver(간/생활자)

여섯번째는 동음이의어가 문맥에서의 이해를 방해한다.

to/two	for/four	red/read(past)	his /he's	your/you're
see/sea	son/sun	here/hear	their/there	no/know

일곱번째는 의사소통의 단위로서 connected speech를 청취 이해해야할 경우 연결(juncture)도 방해 요소가 된다.

I scream/ice cream	a name / an aim
a nice man/ an ice man	keep sticking/ keeps ticking
it swings/ its wings	why choose/ white shoes
new dart/ nude art	its lid/ it slid
that stuff/ that's tough	night-rate/nitrate

a way/away

a long/along

여덟번째는 두 단어가 한 단어로 들리는 경우 또한 의미 해석을 방해한다.

and do --> undo

he is named --> his name

start it --> studied

he is --> his

me though --> meadow / middle

leave --> live

are counted --> accounting

whole day --> holiday

마지막으로 정상 속도로 말할 때 연음되는 소리의 연결체가 개별 소리와 달라서 별개의 음으로 인식되는 경우와 같은 조음점에서 나는 자음이 먹혀버리고 음이 들리지 않게 될 때 즉 sound blending때를 특히 조심해야한다.

for a day - for-a day at a much lower cost - at-a much lower cost

in a box - in-a box at least - at-least

3. 효과적인 교수법 제안

위에 나열한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수원대학교 영문과 일학년 학생들에게 그림이 나오는 비디오를 보고 그 비디오 그림을 설명하는 영문을 고르게 하는 수업을 한학기 동안 한 다음 시험을 보았다. 일 주일에 두시간 연속 강의였고 약 하루 분량은 3쪽 정도이다. 숙제는 CNN이나 AFKN에서 그 주일에 다룬 한국 뉴스를 알아 오거나 일주일 동안 방영된 프로그램의 리포터 이름을 조사해 오게 했고 CNN광고를 보고 이의 내용을 전사해 오게도 했다. 고유명사가 청해에 힘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떤 미국인은 한국방송을 매일 듣고 김영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필자에게 물었다. 어쨌든 외국 방송의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과 관련되거나 흥미 있는 주제를 녹음하여 영어로 전사해 오게 했다. 결과는 학생들은 괴로워했지만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수업 시간에도 사고 단위로 문장을 나누어 단어대 단어 연습보다는 연음된 빠른 속도의 구(phrase)를 연습 시켰다.

시험은 두쪽을 보았는데 비디오를 두 번 들려주고 빈칸 보통은 셋 또는 네칸에 해당하는 구를 비워 두고 채우게 했다. 한 쪽은 긴 대화이고 다른 한 쪽은 짧은 문장이다.

Bob: Hi. Frank Come on in. Okay. I, uh, just finished () design, and we're working on our plan () and we're starting with the sweaters () that's one of () categories we have () and, uh, this is a little plan I put together () current business and what I project for next season.

answer: off with, fourth-quarter, because, the hottest, right now, based on

Frank: Oh... () these sweaters are you planning on delivering for that period?

answer: how many of

Bob: Well, we want to make it about () the line right now.

answer: thirty percent of

Frank: Okay. How many colors?

Bob: Well, I told William to work on about twenty-five colors. Of course, a lot of those will be carried over ().

answer: last season

Frank: And the delivery you're going to be needing?

Bob: Well, we'd like to start delivering () I'd like to start () so it overlaps with our last sweater season. This sweater business is ().

answer: a little earlier than normal, in August, just phenomenal

Frank: Has William got the sample orders and colors and everything or when will he have those ready?

Bob: He's working on those () we're going () down, and you should be in on the meeting, he's going to give us a color presentation () those twenty-five colors. He's also going to have rough sketches on the other styles () basics. And () is you'll look at them to see where we should source them... () we should be doing production, and, ah, then you'll bring them () and start laying it out.

answer: Next Tuesday, to sit, the final selection of, to go with, what you do

Frank: I () plan a trip then probably ().

answer: should be able to, within next ten days

1. The people (are in) a hurry.
2. The man is rowing the boat.
3. The boat is being (taken away).

4. The children are catching a fish.
5. The team (is holding) a meeting.
6. The men are inspecting the wheels.
7. The crew is repairing the equipment.
8. The men are hammering (down the nails)
9. The man is driving a truck.
10. The (carpenter is) making crates.
11. The worker is fixing the machine.
12. The driver (is operating) the crane.
13. The woman is measuring the pants.
14. The fabric is (being made) clothes.
15. The woman sold the customer the jeans.
16. The material is being packaged.
17. The machine was (disconnected).
18. The equipment is being moved.
19. The operator started the machine.
- 20 The (technician is) repairing the equipment.

1번부터 20번까지는 쓰는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격줄로 칸을 비워두었다. 시험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자주 결석했던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A학점 이상을 받았다. 결석한 학생들에게는 Ritchie의 말처럼 “This is based on the seemingly reasonable belief that one cannot use what one does not have.” 즉 모르는 것은 들어도 모른다는 뜻이며 뒤집어서 말하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은 쓸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을 쓰기 위해서는 Peterson(1991:114-21)의 청취이해 활동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상향식(Bottom-up)과정과(Top-down)과정으로 구분하여 하향식과정은 상황 문맥, 화제에 대한 청자의 배경 지식 또는 사전 지식을 이용한 의미 해석이다. Brown(1990:11)도 말을 시작함과 동시에 청자는 그 의미와 다음에 나올 말 그리고 나타내고자하는 의도까지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황, 화자 그리고 화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이용해 발화를 들음과 동시에 예측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향식 과정은 반대로 우리가 지각하는 소리로부터 화자의 의도된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를 인식하기 위해 그 안에 포함된 청각 정보를 지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초보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하향식과정은 성인이나 원어민에 해당한다. 대학생들에게 청해력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두과정을 적절히 이용해야한다.

상향식 과정:

1. 문장 듣고 억양 곡선 구별하기

2. 단어내의 강세 받는 음절 찾기
3. 녹음된 전화내용 듣고 이름 전화번호, 메시지 찾기
4. 듣기 전에 미리 질문 읽은 후 답 찾기

하향식 과정:

1. 묘사 듣고 일치하는 그림 찾기
2. 문장 듣고 화자의 태도 찾기(공손/무례..)
3. 머리말부부 듣고 답지에서 강의의 토의 항목 찾기
4. 라디오 선전 듣고 답지의 상품과 일치하는 것 찾기

수업 내용은 과제와 비디오를 통하여 위의 두 과정을 적절히 조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오류는 몇 곳에서 발견되었다.

1. 전치사를 못 듣는 경우

How many of중 of와 in August의 in within next ten days의 within 을 못 듣는 경우가 많았다. off with중 하나를 듣지 못했다(대부분은 뒤쪽 with를 듣지 못했다).

2. 접속사 because를 못 들었다.

3. just phenomenal에서 어미 -al을 못 들었다.

4. 진행형의 경우 be동사와 -ing형태중 대부분은 be동사와 본동사를 잘 듣는데 -ing를 못 듣고 있다.

5. disconnected의 dis- 또는 -ed중의 한쪽 즉 unstressed 접두사와 접미사를 듣지 못한다(3 참조).

6. are in를 all in으로 듣는 학생도 있었다.

7. available를 a valuable로 듣는 학생도 있었다.

참고 문헌

- 강 명자(1990) 영어청해력 습득을 위한 학습자의 통사 오류 분석 영어교육 40호
 박 약우(1990) 영어 듣기 능력 평가의 문항 분석과 듣기지도 방안, 영어교육 39호
 이 미재(1996) ESL 현황과 전망, 수원대학교 논문집 14집
 이 창호(1971) 한국 학생들의 영어 청취력 배양을 위한 문제점, 영어교육 4호
 차 경환 이경호(1993) Task-based 영어 청취력 교재 분석을 통한 청취력 문항 연구, 영어교육 45호
 Berwick, R.C., & Weinberg, A.S.(1984) The Grammatical Basis of Linguistic Performance, Cambridge: The MIT Press

- Brown, G. (1990) *Listening to Spoken English*, 2nd ed. New York: Longman Group UK Ltd.
- Krashen, S.D. & T.D. Terrell(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California: Alemany Press
- Peterson, P.W. (1991) "A Synthesis of Methods for Interactive Listening,"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nd ed. Ed. Marianne Celce-uricia. MA:Heinle &Heinle Publishers:106-122
- Richards, J.C.(1983) "Listening Comprehension:Approach, Design, Procedure," *TESOL Quarterly*17(2): 21-39.